

보도시점 2025. 5. 12.(월) 09:00

K-ICT 재난관리 기술, 중앙아시아와 손잡다

- 중앙아시아 5개국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

□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5월 11일(일)부터 23일(금)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* 관리자급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‘중앙아시아 ICT 활용 재난관리 역량강화’ 연수를 실시한다.

*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공화국, 타지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우즈베키스탄

○ 이번 연수*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주요 재난인 산사태·지진·홍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, 참가국의 재해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.

* 2024~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

□ 교육과정은 ▲홍수·급경사지·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 ▲재난 대응 훈련 ▲ICT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체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재난관리 정책을 소개하는 9개 과목으로 구성했다.

○ 토론, 액션플랜 보고서 작성 등 정책 제안 실습과 재난 대응 핵심 기관*을 방문하는 현장 견학도 진행한다.

* 기상청, 한국수자원공사(K-Water), 중앙재난안전상황실, 서울종합방재센터 등

□ 아울러, 한성대학교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(5.15.)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, 한국의 재난관리 경험을 국제 사회에 전파할 계획이다.

□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“이번 연수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, 재난 분야 국제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가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	책임자	과 장 강지인 (041-840-6411)
		담당자	주무관 현지민 (041-840-6423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